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최고 수준으로”

도의회 농산경위, 도 방역대책본부서 방역상황 점검 “백신 없는 상태 철저한 방역 통한 확산 방지 총력”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의원들이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9일 전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방문, 방역 현황 및 조치 상황을 청취한 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위기대응단계가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가축 질병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전라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의원들은 안전 심의를 뒤로 미루고 가축 방역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과 24시간 상황근무 중인 방역지원단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이나 치료 약이 없는 상태에서 확산 방지가 급선무”라며 “거점소독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과 이동제한 조치 등 차단 방역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위해 관련 시설을 보급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백신이 없어 도내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는 19일 전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축산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시군마다 조속히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행

정당국에서 최고강도의 방역을 시행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농산경위, 전북도 일자리종합센터 방문 구인수요 맞는 일자리 재교육 확대 등 주문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도내 청년층 실업해소와 일자리에 대한 취업 관련 지원과 정보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도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일자리종합센터는 도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개 기관(전라북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노사발전재단, 잡코리아)이 업무협약을 맺고, 2011년 3월부터 도청 1층 민원실에 업무에 들어갔다.

센터는 지난 8년 동안 구인 구직 상담을 통한 기업의 구인 정보와 구직자의 정보를 활용한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활용, 매년 1000명 이상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폐쇄, 한국GM 폐쇄 등에 따른 도내 대규모 실업 증가 사태가 발생, 이에 따른 실업을 감소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제조업, 경호·경비, HACCP분야 구직자 양성, 구인수요와 훈련기관 연계 전문인력 취업지원 등 재취업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어려워진 전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



일이 요구하는 인력이 제때 채용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희근 위원(전주2)은 “일지러는 구인·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과 구직자가 잘 어울릴 수 있을 때까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심 위원(비례)은 “구직자가 상담할 때 취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감안, 상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과 위원들은 “전북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도민들이 일자리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문 대통령,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靑 “평화 프로세스 성과 설명”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호주·폴란드·덴마크 등 4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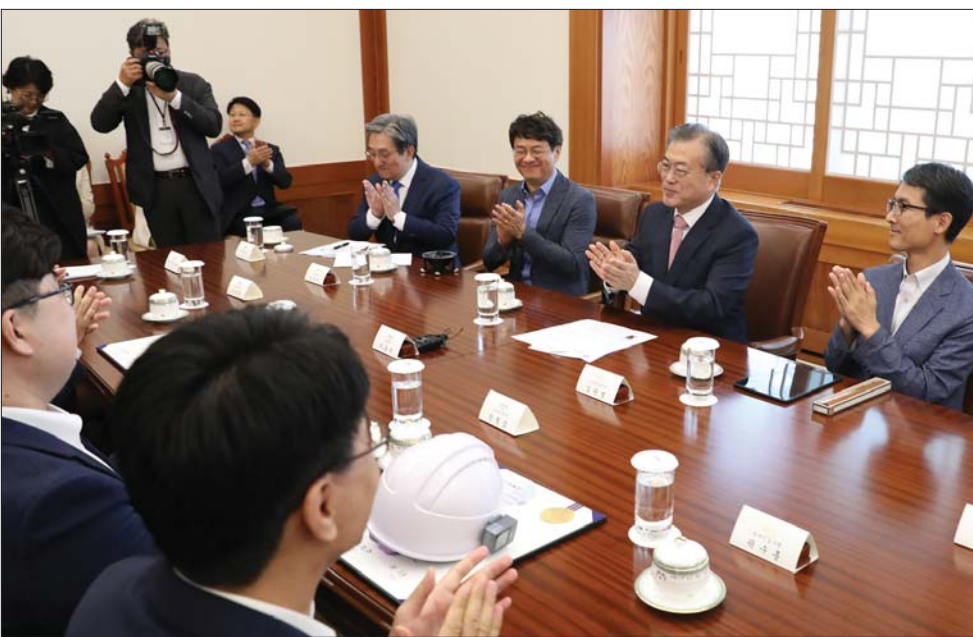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유엔총회가 예정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이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폴란드·덴마크·호주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준비행사 공동 주관,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도차 이틀남인 23일(이하 뉴욕 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한국과 덴마크 공동 주최의 P4G 정상회의 준비 행사에 참석한다.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 대상자들과 함께 인증등록 수여식예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예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라스 피에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한·덴마크 정상회담을 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24일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고,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접견,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환경위, 전북도 노인일자리센터·광역소각자원센터 현장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9일 전북도 노인일자리센터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를 방문, 현황 청취와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민간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신중년 재취업 교육지원, 시니어인턴십, 60+교육센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노인일자리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드림카페와 노인지도자 대학 수업현장을 참관했다.

이어 지난 8월 국의 정책연수 기간에 방문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슈피탈라우 쓰레기소각장’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를 찾아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 과정과 시설 운영상황을 확인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는 최고의 복지”라며 “앞으로도 도내 어르신들



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에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여기가 무주네!

그리고 여유...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